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욱하고 화내고 혈기 내는 것도 욱성이지만, 욱하고 “잠이나 자자. 편안하게 하자.” 하며 안일하게 행하는 것도 욱하는 욱성에 속하는 것이다.
2. 욱하는 욱성이 일어나면 자기 산에 산불을 내는 격이다. 즉시 욱하는 마음을 중지하여라. 회개하여라.
3. 혼자서도 욱적인 마음을 먹고 욱적으로 행하면, 욱하고 성질내고 혈기 내고 행하는 자와 똑같다.
4. 욱하는 성격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다.
5. 욱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선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여라.
6. 욱하는 성격은 가인의 성격으로 자기 영혼을 지옥 불에 사른다.
7. 욱하는 가인의 성격을 없애야 황금같이 값진 주님의 신부가 된다.
8. 거친 가시밭을 파내고 닦아 아스팔트를 깔듯이, 자기 나쁜 성격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닦아 선한 마음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여라. 그래야 그 마음에 잡초도 안 나고 가시덤불도 안 난다.
9. 자기 마음을 한 번 잘 만들면 평생 편하게 사는데, 안 만들고 평생 영원히 고통 당하며 산다.
10.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하고 발전하는 데 쓰기도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데 쓰기도 한다.
11.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기도 하고, 악하게

쓰기도 한다. 선악의 기로에 서 있다.

12. 사람의 마음은 선악과다. 선한 과일로 쓰면 선이요, 악한 과일로 쓰면 악이다.

13. 인간은 선악의 존재다. 선이신 하나님께 가면 누구든지 선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로 가면 누구든지 악의 존재가 된다.

14. 혈기와 악이 없는 자는 지상에서도 하늘 편에서 산다.

15. 욕하는 성격을 없애야 자기 사랑의 상대도 욕하는 성격이 없어진다.

16. 욕하는 성격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는 무기다. 그러다 형제의 육신까지 죽이는 무기가 된다.

17. 욕하는 성격은 논밭의 바위와 같다. 캐내어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마음 밭도 옥토가 되어 작품 된다.

18. 너보다 어린 자라도 나 성자가 그 욕을 쓰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에게 욕하고 화내고 혈기 내면, 소경으로서 그 얼마나 내게 죄를 짓는 것이냐.

19. 사람이든 만물이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대하여라. 순간 욕하고 혈기 내며 대하지 말아라.

20. 욕하는 성질과 분노와 혈기가 있는 자는 마치 그릇에 찌꺼기가 남아 있듯이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자다. 싹 씻어 없애면, 누가 마음을 뒤집어도 욕하는 성질이 안 올라온다.

21. 성자 주님은 마음 바닥까지 착하고 선한 자를 찾으신다. 그 마음은 잡초가

없는 옥토 밭과 같아서 그 영이 빛나게 잘 성장한다.

22. 주 안에서 착하고 선한 자는 미인같이 아름다운 자라서 영계에서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난다.

23. 마음 닦기다. 몸 닦기다. 그래야 희귀종같이 특별한 인생으로 취급받는다.

24. 형상이 있는 바위는 희귀 바위이듯이, 착하고 선한 자는 착하고 선한 것이 형상이 되어 있으므로 결작 인생이며 희귀 인생이다.

25. 성자 주님이 쓰시는 자는 모두 희귀하고 신비한 인생이 되어 가고 있다.

26. 얼굴도 몸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성격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욱하는 모양이면, 모두 가까이하지 않고 피한다.

27. 큰 돌이 있는데 겉모양은 번질번질하고 강변 돌같이 매끄러운데 그 형상이 야수 같고 귀신 같은 형상이면, 사람들은 그 돌을 안 좋아한다. 그 돌은 작품이 되지 못한다. 손질하여 좋은 형상으로 고치면, 돌이 매끄러우니 빛나는 작품이 된다.

28. 돌이 산돌같이 거칠어도 그 형상이 미인 형상이고 성자 형상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며 같이 사진도 찍고 늘 가까이 사랑하면서 대한다.

29.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택하여 쓰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고 중심자로 뽑아 쓰시고, 사랑하는 신부도 뽑아 기르신다.

30.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영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된다.

31.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32. 세상에서 최고로 욱하는 혈기와 분노를 가진 민족은 세계적인 테러범인 북한이다.